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우인식 변호사(010-5174-7736)
대 변 인 양윤숙 변호사(010-7445-0729)
대 변 인 이동찬 변호사(010-8759-0252)
사무처 02-599-4434 | www.hanbyun.or.kr
이메일 hanbyun@hanbyun.or.kr

보도자료

한변, 공수처법 저지 변호사 및 시민단체 총궐기대회 개최

일시: 2019. 11. 2.(토) 14:00
장소: 광화문 원표공원(코리아나호텔 옆)

1. 사법부를 포함한 공무원 조직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한 공수처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법조단체와 3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문재인퇴진국민행동이 공동투쟁에 나섰다. 5백여 명으로 구성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 및 문재인퇴진국민행동(국민행동)과 함께 11월 2일(토), 오후 2시 광화문 원표공원에서 '공수처법 저지 변호사 총궐기대회 겸 문재인퇴진 국민행동 6차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대국민성명 발표와 공수처법의 독소 내용 고발, 국민행동 공동투쟁본부 투쟁계획 선언 후 행동에 들어간다.

2. 행사는 식전 공연(14:00~14:30), 1부 대회(14:30~15:30), 2부 대회(16:20~17:30)으로 나뉘는데, 1부 대회는 한변의 정진경 변호사의 사회로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 권성 전 헌법재판관,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 구상진 헌변 회장, 고영주 전 서울남부지검장 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등이 연사로 나서고, 한변 소속의 젊은 변호사들이 대국민 성명 발표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2부 대회는 이석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장기표 국민의소리 공동대표, 박형준 플랫폼자유와공화 공동의장, 이석복 대수장 운영위원장, 민계식 전 현대중공업 회장, 김주성 전 교원대총장등이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3. 국민행동은 지난 달 전국 동참 단체들과 함께 결성한 '공동투쟁본부' 행동의 첫 번째 투쟁 대상으로 '사법장악 공수처법 저지'를 택한 데 이어 다음 투쟁으로는 '국회의원 증원기도의 선거법 개정 저지' 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총궐기 국민대회에는 한변 변호사 백여 명과 국민행동 참여 전국 36개 단체 백 여명의 대표단,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다.

2019. 10. 3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